

# ‘경도 개발·공항 통합’ 광주·전남 국감 이슈

지역 주요기관 10월 7~19일 여수 사업 대장동 불통 관심 전남도·경찰청 15일 감사 예정

전남도청과 광주지방국세청 등 광주·전남 지역 주요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지역 국정감사 대부분은 국회 내 상임위에서 열릴 예정이며,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북포본부 등 현장에서 감사가 이뤄진다.

특히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개발 사업과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문제 등 지역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국정감사계획서 등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가 10월1일부터 시작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부분 피감기관들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관들은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전남도청, 오후 전남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동안 지역에서 논란이 돼 왔던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과 29층 타워형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여수 경도 부지를 매입해 1조5,000억원을 들여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선 정국의 여·야 간 ‘뜨거운 감자’인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문학적인 이익금 논란이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개발사업으로 불통이 옮겨 붙을 수 있다.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 문제도 국정감사 단골 메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무안·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전남도와 무안군이 반발하고 있다.

10월18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북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광주국세청에서 열린다.

국회 내 감사는 10월7일부터 시작된다.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수·목포해양수산청, 서해어업관리단을, 10월8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을 감사한다.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의 광주지방기상청 감사도 예정돼 있다.

10월12일에는 광주·전남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전력·한전KDN·한전KPS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10월13일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홍수통제소, 14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농어촌공사, 15일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19일은 전남대와 전남대병원의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김용현 기자



## 이석현 평통 수석부위원장 광주 방문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전 국회부의장·사진)이 29일 광주를 방문한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전북지역회의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또 올해 선임된 각 시·군·구 협의회의장 41명에게 임명장도 수여한다. 이 수석부위원

은 광주와 전남·전북지역 부의장 및 협의회장을 대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특별강연을 마친 뒤, 귀경할 예정이다.

한편, 이 수석부위원장은 14·15·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정기 브리핑

### 송갑석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해야”

송갑석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상생기계의 6년간 기술 탈취 분쟁이 해결될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상생 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 년간 납품해 온 상생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상생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해 법원, 공

정위, 중기부에서 각각 소송과 조사, 분쟁 조정을 벌여왔다.

이에 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상생을 위해 상생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며 현대중공업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로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11월 울산지법은 상생기계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피해액의 1.64배로 배상액을 결정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제도 정비와 법률 지원 등 대책을 총출동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희재, 여수~남해 해저터널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을)의원은 28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국도77호선)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확정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 의원은 “4천5기, 23년만에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확정된 것이다”며 “드디어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여수~남해간 국도 77호선을 길이 7.31Km, 폭 4차로의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24억원에 달한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지금은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을 거쳐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가 불과 10분으로 단축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화합을 동시에 이뤄낼 유일한 단위사업으로 평가 받는다.

김 의원은 “오랜 숙원이었던 해저터널



이 건설되면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와 함께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을 아우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호남 상생 실현의 큰 획을 긋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남해안권이 세계적인 관광명소 이자 국제행사 개최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청년 일자리 확대 업무협약 이윤섭 광주시장이 2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유정열 KOTRA 사장과 무역·투자진흥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경제자유구역 외투·개발 중심 정책 한계”

신정훈,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필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매년 급감하고 일부 구역의 투자 유치가 전무해, 기존 외투·개발 중심의 정책에 한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이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억불, 2018년 16억9,000만 달러에서 올해 7월 기준, 3억4,000만 달러 규모로 감소했다. 국내 전체 대비 경제자유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2016년 10.8%,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 2020년 4.3%에서 올해는 2.3%까지 감소했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도 낮았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총 신고액은 164억1,000만 달러, 도착액은 72억8,000만 달러로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4%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충북은 93.8%, 경기 89%, 대구·경북 84.5% 순으로 도착액 비율이 높았다.

반면 동해안권은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3.9%로 매우 낮았고 2024년까지



신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혁신이 시급하다. 외투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2.0’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비수도권을 주축으로 첨단, 핵심전략산업 관련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조오섭 “광주 R&D연구개발비 5년 연속 꼴찌”

사업선정 인센티브 지급

R&D 연구개발사업이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충청권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R&D 예산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R&D사업

비는 2조3,804억원에 달한다.

서울 5,445억원(22.9%), 경기 8584억원(36.1%), 인천 978억원(4.1%) 등 수도권에만 5년간 총1조 5,007억원(63%)이 지원됐다. 또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 3,321억원(14%), 충북 584억원(2.5%), 충남 436억원(1.8%) 등 대전·충청권은 4,341억원(18.3%)이 지원됐다.

반면 광주 209억원(0.9%), 전남 332억원(1.4%), 전북 253억원(1.1%) 등 호남권은 총794억원(3.3%)에 그쳤다.



조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을 막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방의 R&D예산 지원과 사업선정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중흥S-클래스** **중흥그룹**

###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 중흥이 짓습니다

주거명품 중흥S-클래스를 통해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중흥그룹!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큰 목표는 바로 고객의 행복을 짓는 것입니다

• 2020 건설업력증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2019 헤럴드경제 ‘살고싶은집’ 수상복합부문 대상 •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국 주요 사업실적

- 안산 선부동 중흥S-클래스
-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
- 서울 천호동 중흥S-클래스
- 세종시 H9 중흥S-클래스
-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